

인도양 쓰나미 피해국에 대한 일본의 ODA 지원관련 중간평가

일본 외무성은 인도양 쓰나미 피해 발생 1주년이 되는 12.26(월) 인도네시아, 스리랑카 등 피해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무상자금지원의 효과 등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바,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1. 쓰나미 피해 지원 개요

가. 지원방식의 특징

- 자금지원단계에는 특정사업을 연계하지 않는 non-project 무상자금협력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피해국의 자체 수요를 감안하여 지원사업을 발굴가능
- 일본의 국제협력단(JICA)을 조달대행기관으로 활용함으로써, 지원자금의 적절한 관리뿐만 아니라 피해국 정부의 행정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
- 피해국 정부와 현지 일본대사관간 “정부간 협의회”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, 지원자금의 사용 방안에 대해 피해국 정부의 희망을 반영하는

한편, 일본 정부의 자문기능 수행이 가능

나. 지원의 흐름

- 일본은 2005.1.17 각의 결정 직후, 5억불의 무상지원금을 1.19 피해국에 지원
 - 그후 각 국별로 정부간 협의회에서 지원사업의 선정, 사업의 추진상황 관리, 실시 촉진 등을 실시
- 개별사업은 ①조사·설계 등을 포함한 사전조사 및 구입기계 등에 대한 조사 단계, ②입찰자 선정을 위한 기준마련 및 입찰 참가자에 대한 설명서 작성 단계, ③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를 개시하는 단계, ④그리고 물건의 납품 및 시설의 준공 등 사업 완료, 계약금 지불단계로 구분 가능

다. 각 국가별 지원사업 내용(2005.12.15 기준)

- 스리랑카

- 중고 진공자동차의 운송 및 고압세탁기 구입계획
- 급수차 및 저수탱크 구입계획
- 발전기 구입계획 상수도의 재정비
- 피해자용 주택건설계획
- 건설용 중기계 등의 구입계획
- 교량 건설계획
- 경찰서 재건계획
- 초·중학교 재건계획
- 어업용 기자재 구입계획
- 의료 연관 기자재 구입계획
- 피해지 순회용 차량 조달계획

■ 인도네시아

- 의약품·의료기기 공여
- 보건소 재건사업
- 라디오·TV 방송지원사업
- 도로 복수사업
- 연안방수로 복구사업
- 수도·위생시설 복구사업
- 고아원 재건사업
- 어업 지원사업
- 시장 복구정비사업
- 대학 복구 등 지원사업
- 직업훈련학교 지원사업
- 토지대장 복구계획

■ 몰디브

- 어업관련 기자재 구입계획
- 공공시설·설비 정비계획(행정합동청사 건설, 배전망 복구계획 등)

2. 평가목적 및 방법

- 쓰나미 발생 1주년에 즈음하여, 지원사업현황에 대한 대외 설명뿐만 아니라, 앞으로의 피해 복구지원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
-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①사업의 추진상황, ②사업의 타당성, ③시설/기자재의 활용도, ④사업 완료후의 기대효과, ⑤여타 지원국과의 관계(지원의 중복여부 등), ⑥홍보효과, ⑦피원 조국에 의한 평가, ⑧현지 평가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청취를 통해 이루어짐.
- 현지 전문가 등 제 3자기관에 의한 평가도 실시

3. 각 국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

가. 스리랑카

- 사업추진 상황은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편이나, 발전기·급수차 등 긴급한 물자 구입에 있어서는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이 지적
- 피해지역의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을 발굴하였기에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높음.
- 시설·기자재의 활용도는 높음.
- 피해지역 구제에 기여하는 등 기대효과도 높게 평가
- 여타 지원기관과의 관계와 관련, 지원사업의 중복이 없으며 상호 연계되어 추진
- 홍보효과와 관련, 현지 일본대사관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원사업에 대한 피해지역 주

민의 인식이 높은 편

- 원조국도 전체적으로 높게 평가
- 조사, 평가자의 경우, 시시각각 변화하는 피해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적시에 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을 강조
 - 이와 관련, 초중학교 건설계획 등 다수의 시설공사에서 JICA의 사전조사 기능, JICS의 조달 감시기능이 원활히 연계됨으로써 사업 성과도 높고 향후 지원의 모델사례로 평가
 - 다만, 현지통화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환율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자금 규모가 변화하는 등 환율관리 필요성을 지적

나. 인도네시아

- 사업추진 상황은 전반적으로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되나, 여타 지원국과 비교시 일본의 지원 속도는 빠른편
 - 인도네시아 정부의 피해지역 지원사업의 조정기능 및 조정시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, 사업지연은 회피 곤란
- 사업 타당성은 높게 평가
- 시설/기자재의 활용도는 현재 다수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평가하기 곤란하나, 사업 관련 기자재가 중간에 인도된 경우의 활용도는 높음.
- 기대효과도 전체 사업에서 긍정적으로 평가

- 여타 지원국에 의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며, 일부 사업은 적절히 연계

- 홍보효과와 관련, 토지대장 복구계획 등은 현지 인지도가 높은 편이나, 인도네시아 정부내의 연락 및 정보공유부족 등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사업도 존재

- 평가자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조직정비 뿐만 아니라, 추진사업 관리를 위한 체제정비의 중요성을 지적

다. 몰디브

- 사업 추진상황, 사업의 타당성, 시설의 활용도, 기대효과, 홍보효과 모두 높게 평가
 - 특히 시설재건 사업은 몰디브 정부의 “국가 복구부흥계획”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타당성이 높게 평가

- 여타 지원기관과의 관계와 관련, 어업분야의 경우 FAO, JICS와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짐.

표제 중간보고서 全文은 PDF 파일 형태로 외무성 홈페이지(www.mofa.go.jp/mofaj/area/asia/pdfs/sumatra_tsunami_z.pdf)에서 입수 가능함.

[자료: 주일본 대사관]